

## [ 종합·해설 ]

&lt;2&gt; 행정자치부



# 5共 이후 장관 48명 중 호남사람 3명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정부 부처를 일반적인 서열로 볼 때 부총리급이 수장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는 물론 장관급이 수장인 부처에서도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의 뒷자리에 위치한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방자치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정부 권력의 중심이며 국가 행정의 중추 기능을 하는 핵심 부처로 꼽히고 있다.

특히, 과거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된 행자부는 국가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기관으로 인식되면서 장·차관 및 고위직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를 반영하듯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3년 4월 행자부 고위직 인사를 둘러싸고 광주·전남 지역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1·2급 고위직 인사에서 호남 출신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참여정부가 지역적 기반인 영남 출신만 챙기고 있다는 소위 '호남 훌대론'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광주를 방문해 "지역 안배가 소홀 했었다"는 입장과 함께, "다음 인사 때 호남 출신은 중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여론 무마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행자부 고위직 인사에서 빛어진 호남 인맥 배제는 추후 이뤄진 대북 특검 수용 및 민주당 분당 사태 등과 맞물려 참여정부의 최대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 민심이 여론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



이 같이 호남 민심이 행자부 장·차관도 아닌 고위직 인사에 미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국민의 정부에서 겨우 자리를 잡기 시작한 호남 인맥이 참여정부에서 다시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호남 인맥이 꽃을 피우지 못한 대표적인 정부 부처 가운데

행자부가 국회 양형일 의원(광주 동)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공 이후 참여정부까지 48명의 행자부장관(내무부, 총무처 장관 포함) 가운데 호남 출신은 단 3명(강운태, 최인기, 이용섭)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영남 출신은 26명에 이르러 호남 출신보다 무려 23명이나 많았다. 특히, 지난 제5공화국부터 문민정부까지 영남은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정권에서 행자부의 전신인 내무부와 총무처의 수장은 사실상

영남 인맥이 독차지했다. 총 22명의 내무부장관 가운데 호남 인맥은 강운태 장관(문민정부)이 유일한 반면, 영남 출신은 절반이 넘는 12명에 이르렀다. 또한, 16명의 총무처 장관 가운데 영

이호계(에 불과했으나 영남 출신은 7명으로 집계됐다. 총무처 차관 10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3명, 호남 출신은 1명(손관호)에 불과했다.

그러나 차관급이지만 한직으로 분류되는 당시 총무처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와 중앙공무원연수원장은 호남(손관호, 박해준, 최동석, 황병인)과 영남 출신이 각각 5명씩으로 균형을 이뤘다.

이러한 호남 열세는 내무부와 총무처로 통합된 국민의 정부에서는 물론, 참여정부에서도 계속됐다. 5명의 행자부장관 가운데 호남 출신은 최인기씨가

유일했으며 영남은 무려 4명이나 됐다. 이는 행자부 내에서 발탁할 수 있는 호남 인맥이 탄탄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지만 당시 '동진정책'을 추진한 국민의 정부에서 영남 인사를 주로 발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5명의 행자부장관 가운데서도 호남 출신

은 현 건교부장관인 이용섭씨가 유일하다. 참여정부가 지역적 기반인 영남 인사들을 중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국민의정부 및 참여정부에서의 차관급 인사는 비교적 영·호남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다.

10명의 행자부 차관 가운데 호남 출신이 4명(김홍래, 정영식, 조영택, 김주현), 영남 출신 4명으로 집계됐다. 또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기 전까지 행자부 소속이었던 중앙공무원연수원장 및 소청심사위원회도 호남 출신 7명(니승포, 권현신, 김주현, 김완기 등), 영남출신 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이사관 이상 행자부 내의 고위공무원단 72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무려 30명(광주·전남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무원단을 지역 출신별로 나눌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는 차기 정권에서 장·차관 등 고위 정무직으로 발탁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며 그만큼 호남 인맥의 히어리 탄탄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광주·전남 출신 주요 인사로는 정남준(정부혁신본부장), 이개호(자치경찰제 추진단장), 신경완(감사관), 이병훈(균형발전위원회 회장), 정종재(자치행정팀장), 이희봉(재정정책팀장) 등이다.

호남 출신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행자부 내의 호남 인맥은 비교적 탄탄한 편"이라며 "차기 정권에서 상식적인 인사가 이뤄진다면 호남 출신이 고위 정무직에 진출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 호남 인맥 대표주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 "박정권시절도 인맥유지...신군부 이후 쇠퇴의 길"

행정자치부에서 호남 인맥의 대표로는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이 가장 우수적으로 꼽힌다.



행사 수석 학과 대내부 행정과장, 재정과장, 광주시장, 전남지사, 내무부 차관보, 내무부 차관(2차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최인기 의원은 당시 내무부에서 '두목'으로 불리우며 호남 인맥을 대표했다.

22일 행자부내의 호남 인맥과 관련, 최 의원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행자부(당시 총무처, 내무부)는 경제부처에 비해 비교적 호남 인맥이 유지된 편이었으나 5공 이후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특히, 영남 정권이 수십년 동안 집권하면서 행자부 내의 영남 인맥은 체계적으로 관리된 반면, 호남 인맥은 핵심 포스트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점차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즉 호남 인맥의 고위직 진출이 막히면서 선배가 후배를 관리하지 못했고 이는 곧 호남 인적 자원 부족으로 연결되면서 호남 인맥의 쇠퇴로 이어지는 악순환 이뤄졌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특히, 최 의원은 "영남 정권에서 내무부 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지역 후배들을 행자부 내에서 호남 인맥의 끈을 이어왔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선배가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문화를 점차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영남 정권에서 내무부 차관을 3년 동안 맡으면서도 결국 장관에 임명되지 못한 최 의원은 "쉽석한 마음이 없지도 않았지만 두 번째 입각이 좌절되자 개의치 않고 사표를 던졌다"며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은 사심을 버리고 종종의 길을 간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 출신 후배들이 각 부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는 최 의원은 "직업 공무원은 일로써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며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가 필요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즉 호남 인맥의 고위직 진출이 막히면서 선배가 후

배를 관리하지 못했고 이는 곧 호남 인적 자원 부족으로 연결되면서 호남 인맥의 쇠퇴로 이어지는 악순환 이뤄졌다는 것이다.

유력 후보들은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후보들과 소속 정당들은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마지막 주말과 휴일이 낄 20~22일에는 각 당의 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나서 삼지역을 돌며 막판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이번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후보가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함으로써 이번 차·보선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일 지역구 선거가 이번처럼 많은 논쟁을 부른 예도 드물 것이다. 출마 후보들의 비리 전력과 권력세습 논란, 전략공천 등이 그 핵심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이어 '지역원로 100인 선언'이 나왔고 특정후보의 출마에 반대하는 대책위까지 출범했다. 지난 19일에는 대학교수들이 시민단체 대표들과 긴급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who@kwangju.co.kr

Solution Partner

# GOOD START



**LG화학의  
좋은 소재로 시작하세요**

좋은 쌀로 짠 밥이 더 맛있듯,  
좋은 소재로 시작하면 더 좋은 제품이 탄생합니다.  
LG화학과 시작하십시오. 시작이 반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시작되는 곳,  
여기는 LG화학입니다

# GREAT SUCCESS



**당신의  
큰 성공을 돋겠습니다**

첨단 IT소재, 자동차부품소재, 건축장식재 등  
LG화학만이 드릴 수 있는 수많은 솔루션들이  
당신의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고객의 성공이 완성되는 곳,  
여기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정 후식  
정치부 차장

'참공약' 없는 선거전

4·25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후보들과 소속 정당들은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마지막 주말과 휴일이 낄 20~22일에는 각 당의 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나서 삼지역을 돌며 막판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민주당 한화갑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이번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선은 김대중 전 대통

령의 차남인 김홍업 후보가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출마함으로써 이번 차·보선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일 지역구 선거가 이번처럼 많은 논쟁을 부른 예도 드물 것이다. 출마 후보들의 비리 전력과 권력세습 논란, 전략공천 등이 그 핵심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이어 '지역원로 100인 선언'이 나왔고 특정후보의 출마에 반대하는 대책위까지 출범했다. 지난 19일에는 대학교수들이 시민단체 대표들과 긴급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